무등일보

2013년 02월 20일 (수)
16면 스포츠

바이애슬론 전남선발팀 은메달

제94회 동계체전

금1 은3 동2 기록

19일 오후 강원도 평찬 알펜시아 경기장에서 열린 제94회 동계체전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경기 18㎞계주에서 은메달을 따낸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도체육회 제공**

제94회 전국동계체전이 강원 등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은 19일 바이애슬론에서 은메달 1개를 따냈다.

조인희 김서라(신안군청), 김미선(광양시청)으로 구성된 전남선발팀은 19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경기장에서 열린 제94회 동계체전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 18㎞계주에서 1시간8분9초기록으로 15점을 획득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전남은 이번대회 금1개 은3개 동1개를 달리고 있다.

이어 바이애슬론 남자일반부 계주 22.5㎞에 출전한 김진호, 이승일(동신대), 이민재, 최호진(전남연맹)이 선전을 펼쳐 15점을 획득했으나 입상하지는 못했다. 또 강원도 웰리힐리 파크에서 열린 스키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남자일반부 송형진, 안강우, 안세환, 조용우(전남협회)도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김상욱 전무이사는 "이번 대회 간판 문지희가 출전하지 못하고 김서라가 5일 전에 갑자기 부상을 당해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면서 "20일 개인경기 15㎞에서 김서라와 조인희가 사격에서 좋은 기량을 펼쳐준다면 금메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은 20일 바이애슬론 남자일반부 개인 20㎞와 여자일반부 15㎞에서 금맥에 도전한다. **임정욱기자**

전남매일

2013년 02월 20일 (수)
12면 스포츠

전남 바이애슬론 '은'…메달 행진

전남 총점 233.5점 8위 · 광주는 203점 9위

■ 동계체전 이틀째

전국동계체육대회 이틀째인 19일 전남선수단은 전날 피겨 금메달에 이어 바이애슬론에서 은메달을 추가해 메달행진을 이어갔다.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알펜시아경기장에서 열린 여자일반부 바이애슬론 18km계주에서, 김서라 · 조인희(신안군청) 김미선(광양시청)조가 1시간08분09초6을 기록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메달진입에 실패했지만, 김진호 · 이승일(동신대) 이민재 · 최호진(전남연맹) 4명이 참가한 남자일반부 바이애슬론 22.5km계주서도 1시간34분05초3으로 4위를 마크해 점수 15점을 확보했다.

또, 남자일반부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 출전한 송형진 · 안강우 · 안세환 · 조용우(전남협회)가 12등으로 4점을 보탰다.

이로써, 전남은 바이애슬론 계주서 은메달 1개를 획득해 얻은 15점과 남자계주 4위 15점, 스노보드 4점 등을 더해 총점 233.5점으로 8위를 달리고 있다.

현재까지 전남은 빙상피겨 싱글D조 금메달 1개(6점), 스키 크로스컨트리 은메달 2개(63점), 빙상쇼트트랙 동메달 1개(33.5점), 스키 알파인 9위(49점), 컬링 7위(48점), 스노보드 12등(4점) 성적을 거뒀다.

광주는 메달획득엔 실패했지만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 및 남자일반부 계주에서 각각 5위와 7위를 차지, 12점을 확보해 총점 203점으로 순위 9위를 지키고 있다.

광주는 지난 동계체전에선 총점 187.5점으로 종합성적 11위에 그쳤지만 이번 대회선 200점을 훌쩍넘어 기대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는 9위자리를 놓고 인천 및 경북선수단과 대회 마지막날까지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아직 대회가 끝나지 않았지만, 전남은 잇따른 메달소식에도 지난해 성적 281점에 비해 40점 이상 뒤진 것으로 나와 비상이 걸렸다.

20일에는 김서라, 조인희, 김미선 등이 바이애슬론 15km 개인전에 출전, 메달을 노리고 있다./고광민 기자

알펜시아경기장에서 열린 여자일반부 바이애슬론 18km계주에서, 김서라 · 조인희(신안군청) 김미선(광양시청)조가 1시간08분09초6을 기록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27.8 X 15.7 cm